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알곡과 쪽정이

추수가 다 끝나 황금물결 출렁이던 들녘은 내년을 기다리며 차분히 비워져 있습니다. 봄의 푸르름을 기다릴 수 있는 씨앗은 쪽정이 아니라 알곡입니다. 알곡은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속이 영글어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지만 쪽정이는 속이 차지 않고 껍질만 영글어 겉모양은 알곡이랑 비슷한데 키질을 하면 속이 비어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키 속에 남은 알곡은 자루에 담겨 곳간에 보관하지만 바람에 날려 마당에 흩어진 쪽정이는 속속 비질해서 아궁이 불 속에 쏘아 넣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영근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속이 주님 사랑으로 잘 영글어 꽉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으로 잘 영근다는 것을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에게서 봅니다. 필리피서의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사도 바오로는 주님 사랑으로 잘 영글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1장에서 수고와 고생,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등등, 사도로서 겪은 수많은 고난을 열거합니다. 뭐든지 잘 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함과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한국교회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선은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에서 흘러나오는 나눔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충만해져서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선은 알곡의 증표이며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최훈 타대오 신부 | 교구 사회복지국장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스바 3,14-18ㄱ
화 답 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 2 독 서	필리 4,4-7
복 음	루카 3,10-18

교구 레지아 활동계획 발표회, 교구 평협 상임위원 연수



2021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여정을 교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여인석 베드로 신부(사목국장)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교구 레지아 활동계획 발표회에서 시노달리타스 주제인 ‘친교, 사명, 참여’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11월 27일 교구 평협 상임위원 연수는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로 최현순 데레사 박사(서강대학교)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52차 선택주말



11월 6일, 7일, 14일 3일간 교구청과 복신동성당에서 ‘52차 선택주말’이 열렸다. 14명의 수강자들은 ‘알고 사랑하고 나누기 위하여(To know, love and serve you)’라는 주제로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관계에 충실함으로써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느님께 더욱 깊은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우 아우구스티노 신부(선택주말 담당)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녹르지 않은 여건에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봉사하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며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젊은이들이 나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속함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대림 시기의 신비의 비밀은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끝장나는 곳 바로 그 곳에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 영성가, 토마스 머튼 신부의 “대림 시기, 희망인가, 망상인가?”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대림 시기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끝장나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끝장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뜻, 나의 집착, 나의 틀”, 다시 말해 “나의 거짓 자아”에 대해 마지막을 고하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엄밀히 말하

“대림 시기에 깨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음과 깨어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대림 시기를 보내야 할까요?”

자면, 이미 내 안 도래(Advent) 하신 그리스도께서 깨어나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신만의 삶의 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이러한 고착된 자아에서 벗어나 홀로 광야로 나아가 새로운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음으로써 과거에 내가 알고 체험한 그 하느님을 넘어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거짓 자아와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없을 때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튼 신부님은 대림의 신비를 “비움의 신비, 가난의 신비, 한계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영적 가난,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나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는 새로운 시작을 고대하는 ‘희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동방의 세 박사들이 지금까지 알던 자신들의 하느님을 넘어 새로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희망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을 떠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끝장’날 수 있을까요? 먼저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자리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떠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터널을 통과해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어둠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어둠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희망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닥쳐온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팬데믹은 ‘인간 중심’의 사회가 가져온 어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라는 시대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의 것이 끝장나고 하느님의 것을 시작” 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것’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느님 방식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을 화해하고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 안에 마지막을 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삶 속에 하느님 이외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끝장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방주에 탄 선량한 노아의 가족처럼 진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방주에 든다. 곧 출항하려는 배를 잡고 생명의 보금자리로 든다. 하느님께서 선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방주에 초대받은 마음으로 진동성당을 찾는다. 방주의 모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돋보이는 마산의 끝자락 진동성당이다.

편안하고 아늑하고 가족 같은

조정제 오달론 주임 신부는 이 공동체가 지닌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다고 말한다. 아늑함이 묻어나는 이곳에서 신자들이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지내기를 바란다. 이 성당에 젊은 신자들이 귀한 것은 아쉽지만, 안정되고 잘 짜인 신자들의 신심생활 움직임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하단다. 욕심을 내면 끝이 없지만, 마음을 비우면 성전에도 뜰에도 평화가 가득하여 이웃 동네로도 넘실댄다.

방주에 탄 선량한 노아의 가족처럼 진동 자매들이 웅기종기 모였다. 김정선 엘리사벳, 이명숙 루치아, 최도선 노엘라, 이봉남 마리아, 권영순 울리아나 이렇게 전·현직 간부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치켜세우기에 시끌벅적하다. 누가 잘했다, 욕봤다, 고생했다 하고 이어가다가 전임 사제들에게로 바통이 넘어간다. 현재 구역분과장을 맡은 권 울리아나만 빼면 모두 진동성당 역사를 처음부터 거의 함께한 사람들이라 한 가지 칭찬이 나오면 줄줄이 맞장구친다. 어느 사제 한 분도 빼놓을 수 없다는 듯, 거쳐 간 한 분 한 분 손을 꼽아 가며 모두 소환하고 진심으로 그리워한다.

그러다 이 루치아가 공소시절 처음 레지오를 시작할 때 꼬미시움에서 나온 간부가 했던 말을 떠올려 꺼냈다. 그분은 열 명 정도가 모여 창단하려는 단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전 건립의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했다. 그 울림이 매우 컸다. 김 엘리사벳과 레지오를 하면서 의기투합했고, 그때부터 몇몇이서 2,3천 원씩 적금을 들며 의지를 불태웠던 옛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숙연해 한다. 그러고는 서로서로 잊지 못할 성전 건립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염원했던 성전 건립 2005년

공소생활을 접고 1993년 8월 17일 본당 승격을 이루었지만, 가건물에서 전례를 거행해야 하는 신세는 한동안 이어졌다. 염원하는 성전 건립을 향해 실부리 같은 희망을 모아 뿌리를 깊게 내리는 노력을 했다. 그 일에 힘들게 동참했던 자매들은 생생한 기억을 끄집어낸다. 건축기금을 모으려고 전국의 34개 본당을 돌았다. 식비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이느라 밥과 시락국을 마련하여 돌아다녔던 시간이었다. 온 신자들이 매달려 1단, 5단 묵주를 만들어 팔았다. 다른 본당의 행사에 김밥을 주문받아 팔았고, 쭉 캐는 계절에는 쭉떡 팔기에도 나섰다. 콩이 나면 콩을 팔았고, 채소가 자라면 채소를 팔았다. 신자들은 건축기금 신립 외에도 기금을 모으는 방안에 따라 무슨 일에도 나섰다.

2005년 5월 26일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어 땀 흘린 신자들은 위로를 받았다. 안명옥 주교를 비롯한 사제들과 수도자, 수많은 신자들의 축하와 기도로 뜨거웠다. 지상 2층 건물인 진동성당은 독특한 배 모양으로 지어 어촌 지역인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비로소 어엿한 본당 신자가 된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 최 노엘라는 "성전 건립이 끝이 아니라, 제단에 기도를 쌓아야 한다."는 한 사제의 가르침이 늘 마음에 남아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을 디디면서 '미사 100배 즐기기' '성가와 기도는 기쁜 마음으로 하기' '성전 안에서 침묵하기' 등등을 새기고 기도를 쌓으며 신심을 다진다.



설립 30주년을 향한

진동성당 사목위원들은 술선수범하며 민주적으로 일한다. 이태 뒤에 맞이할 본당설립 30주년을 두고 회장 방인용 요한과 부회장 이봉남 마리아는 이번에 기꺼이 연임을 받아들였다. 본당30년사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30주년에 대한 행사도 성전을 건립했던 때의 열정을 되살려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다. 이 마리아는 공소 때 영세를 받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주님은 충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10여 년 전부터 복지분

과장에다 구역분과장을 거쳤고 부회장을 연임하게 되었으니 지칠 법도 한데 신부님이 “어서 오이소!” 하며 반기는 바람에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진단다. 본당의 출발에 함께했던 설렘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다. 성전 건립 때의 벅찬 기쁨도 여전하다. 사목위원들은 신자들과 힘을 한데 모아 진동성당이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김 엘리사벳의 부군 변재호 야고보는 삼진공소 때부터 회장을 맡았다가 본당 승격 후 초대 사목회장이 되어, 본당초기의 어려운 여건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는 살던 주택을 팔아 아파트로 옮기면서 금목서를 비롯한 정원수들을 성당 주변에 심어놓았다. 세상을 떠났지만 정원수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어, 신자들은 나무들을 보며 앞선 선배의 공을 기린다.

성전 건축이 다 된 후에 전입하여 호강을 누린다는 권 올리아나는 진동성당은 더 바랄 게 없이 좋단다. 그러나 “고성성심의 집 수녀님이 여기로 미사 하러 오시면, 우리 성당에도 수녀님이 계시면 더 따뜻하고 좋겠다.”는 부러움을 말한다. 하지만 진동성당에는 수도자가 없는 대신 따뜻한 성모님 동산이 있다. 신자들이 정성을 쏟아 조성한 손길이 환히 보인다. 참 예쁘고 정다움이 깃들여 있어 누구라도 다가서면 마음이 열리는 성모님 공간이다.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12월 14일(화) 14:00

장소: 교구청

연구과 1학년 겨울방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12월 13일(월)

학부 1학년 겨울방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12월 18일(토)

소공동체장 연수

일시: 진주시구-12월 14일(화) 13:00

장소: 신안동성당

일시: 거제지구-12월 15일(수) 13:00

장소: 고현성당

교구 성경 봉사자 종강미사 및 모임

일시: 12월 14일(화)

장소: 교구청

교구청 직원 연수 및 직장인 법정무교육

일시: 12월 17일(금)

장소: 교구청

사무장 연수

일시: 12월 16일(목)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부 제단체 봉사자피정

일시: 12월 18일(토)~19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 타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12월 30일(목)~22년 1월 12일(수)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안내

모집: 정시 249명 + 수시이월인원

·[가군] 학생부교과 선발

(고교 졸업/검정고시 출신, 수능 미반영)

유스티노자유대학(전면 원격수업 진행)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

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나군, 다군] 단과대학 통합선발(희망학과

우선선택)

·다양한 장학금·학생복지혜택

문의: 053-850-2580

2021 송년피정

일시: 12월 26일(주일) 14:0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강화 피정의 집

(온라인 참여 가능)

대상: 40세 미만 미혼 남녀

주관: 예수성심전교수도회/수녀회

문의: 010-4386-3103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22년 1월 31일 마감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2년 2월 9일(수)까지(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22년 3월~12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을 87.5%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금) 16:00~22년 1월 1일(토)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주례: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청: 60일(1실당 1~2명) 선착순 마감,

계좌-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2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나 PCR검사 음성확

인서 제출자에 한함

한마음의 집(무료급식소) 조리사 채용 공고

모집: 1명(조리사 자격증 보유자 및 단체급식

조리사 유경험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조리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접수: 12월 17일(금)까지(방문접수)

면접: 추후 개별통보

문의: 가톨릭여성회관 055-255-508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거창본당 라오브라(La Obra) 성극단,

〈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창단 공연



공연시간: 12월 13일(월)

15:00, 19:00

장소: 거창문화원 상설미홀

입장료: 1만 원

문의: 거창성당 사무국

055-944-0781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 18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서울성지순례 2박 3일 25만원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크 투어 010-4239-192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주식회사 바른 23492387/23492388/23492389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칼라무니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도장공사 주식회사 바른(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전화 : 010-5055-0076 Anna Organ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진경선 안나 010 6409 480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합천본당 제1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허강배(안젤로)
 사목협의회부회장: 정순옥(모니카)
 총무: 김경화(루시아)
 기획관리분과위원장: 김경미(스콜라스티카)
 복음화분과위원장: 이달연(세실리아)
 전례분과위원장: 이양득(아가다)
 청소년분과위원장: 주현선(카타리나)
 구역분과위원장: 최영옥(데레사)
 시설관리분과위원장: 류성수(요셉)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손혜숙(에스텔)
 홍보분과위원장: 주연주(체칠리아)

함양본당 제40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노명환(에프렐)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봉수(안셀모)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박옥희(크리스티나)
 총무: 서해정(올리야나)
 재경분과위원장: 박구열(요셉)
 전례분과위원장: 임둘리(말가리다)
 복음화분과위원장: 전복동(마리루치아)
 시설분과위원장: 손상현(미카엘)
 청소년분과위원장: 정원영(비비안나)
 구역분과위원장: 윤선아(세실리아)
 복지분과위원장: 권성희(요셉파나)

사천본당 제2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강정근(세베리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최재권(경환 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증선(마리나)
 총무분과위원장: 박정호(명혁 다미아노)
 전례분과위원장: 김순옥(노엘라)
 복음화분과위원장: 안재완(프란치스코)
 재경분과위원장: 김경렬(파스칼)
 구역분과위원장: 백현숙(소화 데레사)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안미화(미카엘라)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유경(안나)
 시설분과위원장: 이준기(미카엘)

명서동본당 제1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박건호(즈카르야)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최흥근(이시도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정종순(크리스티나)
 총무분과위원장: 길태오(시메온)
 가정·노인사목분과위원장: 이상수(베네딕토)
 교육분과위원장: 강선희(올리야나)
 구역분과위원장: 최미자(그라시아)
 복음화분과위원장: 최성국(요한보스코)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숙련(루치아)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윤병진(마르티노)
 우리농분과위원장: 김홍자(가타리나)
 재경분과위원장: 이순실(안젤라)
 전례분과위원장: 박건향(논나)
 청소년분과위원장: 박재영(굴리엘모)
 홍보분과위원장: 황국일(모세)

월영본당 제1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창규(가브리엘)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주필준(베네리노)
 김홍규(마태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천경선(리나)
 총무분과위원장: 이성열(도미니코)
 재경분과위원장: 허성배(프란치스코)
 선교분과위원장: 김수경(데레사)
 교육분과위원장: 김현숙(레아)
 홍보분과위원장: 김정확(요셉)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미숙(헬레나)
 구역분과위원장: 심영선(루치아)
 전례분과위원장: 최미혜(로즈마리)
 시설분과위원장: 문귀호(요셉)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장용걸(알베르토)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창환(요셉)

사림동본당 제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박삼생(다마소)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정태(사도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최남순(스텔라)
 총무기획분과위원장: 정희선(다니엘)
 재경분과위원장: 이강제(미카엘)
 전례분과위원장: 천동수(프란치스코)
 복음화분과위원장: 박재희(데레사)
 지역분과위원장: 신금순(카타리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정순(레지나)
 어르신분과위원장: 박현재(아나시오)
 청소년분과위원장: 김미영(노엘라)
 홍보분과위원장: 이상념(아녜스)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이병호(스테파노)
 시설관리분과위원장: 방춘석(베드로)
 성경분과위원장: 조임숙(아녜스)
 꾸리아단장: 나관수(마태오)

칠원본당 제1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박이호(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주원식(베드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주상미(올리아)
 총무: 박갑춘(대건 안드레아)
 황정이(마르첼라)
 재정분과위원장: 안석중(요셉)
 선교분과위원장: 노인숙(데레사)
 전례분과위원장: 방순옥(마리아)
 구역분과위원장: 이영순(마르가리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정진(올리아)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영희(아녜스)
 시설환경분과위원장: 이일환(요한)

하대동본당 제1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강윤수(라우렌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명환(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천명희(요안나)
 총무기획분과위원장: 박경운(프란치스코)
 전례분과위원장: 이정희(소피아)
 복음화분과위원장: 박금립(모니카)
 구역분과위원장: 장미자(마리아)
 청소년분과위원장: 노재원(비오)
 교육분과위원장: 박태수(아론)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진순(로사)
 가정사목분과위원장: 박종혁(대건 안드레아)
 홍보분과위원장: 백용주(야고보)
 시설분과위원장: 이성원(요한)

중앙동본당 제2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심요섭(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종호(아오스딩)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귀자(로사리아)
 총무분과위원장: 이창호(시몬)
 기획재경분과위원장: 이인수(다미아노)
 전례분과위원장: 정혜란(아녜스)
 교육분과위원장: 선명숙(마리아)
 구역분과위원장: 박정순(안젤라)
 홍보분과위원장: 김미정(아녜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노갑정(요셉)
 시설분과위원장: 유정호(아나니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이형욱(타대오)
 복음화분과위원장: 하명숙(에디타)



바다의 기적(탈출 14,15-15,21)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금 우리는 바알 츠폰을 마주한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뒤로는 파라오의 병거가 바짝 추격해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앞장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서 이집트 군대의 시야는 흐리게 하고, 대신 이스라엘 진영은 환히 밝혀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저자는 이 기적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하느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전적인 기적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곧 모세가 손을 뻗자 바다는 둘로 갈라져서 물이 좌우에서 벽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 바다를 건넜습니다. 또 하나는 때마침 일어난 자연 현상으로 이 사건을 묘사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자 바닷물이 한쪽으로 밀려 마른 땅이 드러났고, 날이 새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물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목격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진도와 모도 사이에 거대한 바닷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탈출기에 묘사된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후보지는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인 만잘라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 호수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만잘라 호수는 사주나 사취의 발달로 바다와 격리된 석호(潟湖)여서 그 깊이가 비교적 얕으므로 거센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불면 호수 바닥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기적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한 것은 이 사건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구원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처: 네이버 블로그-성경 미술관(Bible Art Gallery)
코시모 로셀리(Cosimo Rosselli, 1439~1507)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이집트의 군사들은 병거를 몰고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병거 바퀴가 바닥의 진흙에 박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기에 얼마 나아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온 물살에 휘말려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큰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벅찬 마음은 노래로 터져 나옵니다. 탈출기 15장은 하느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른 찬미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선창하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북을 들고 춤을 추며 응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기도 때 이 노래를 낭송합니다.

바다의 기적 사건은 탈출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구원 사건을 왜 거듭하여 기억하고 노래하였을까요? 하느님의 구원 업적에 대한 기억은 시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기억 장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도, 기도할 때마다 팔과 이마에 성구갑을 차는 것도, 옷자락에 옷술을 다는 것도 모두 하느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 장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 장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은 어제 나를 돌보셨던 그 하느님께서 오늘도 돌보실 것이며, 내일도 또한 그러하실 것임을 굳게 신뢰합니다.

다음 순례지는 시나이 광야가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 여정의 준비물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겨 드리겠습니다.